

강영식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장

“새야!  
다시는 사람의 손에 잡히지 말아라...”

얼마전 북한산에서 20년 만에 ‘까막딱따구리 (천연기념물 242호, 1973년 지정)’가 발견돼 북한산의 생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들었다. 그러나 이 천연기념물이 발견됐다는 기쁨보다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나 하는 사실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즐겨 불렀던 ‘따오기’라는 구전동요속의 주인공인 ‘따오기’는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의 희귀종이 돼 버린지 오래고,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 역시 흔한 조류만은 아니다. 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무차별 개발로 인한 서식지가 사라지고 환경오염으로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와 함께 생태문화를 보전해 나가고 있는 강영식(40.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지회장. 아름다운 제주에서 제주의 환경과 조류보호에 앞장서고 생태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강 지회장을 만나 그가 가진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새에 대한 열정을 들어보았다.

■ 조류보호협회에서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 말 그대로 지역 서식지에 분포된 조류를 파악/분석하고, 밀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하며, 제주를 찾은 귀한 새들을 모니터링해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다친새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새를 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무래도 새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라 하겠죠.

■ 조류보호협회의 일을 하게 된 동기는?

▶ 저는 제주도 시골마을에서 태어났고 생활해왔습니다. 어릴때부터 보리밭에 수천마리의 기러기가 앉아서 노는 모습과 때를 지어 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주도에서조차 보리밭과 기러기 떼를 목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를 떠나 학교 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던 중 ‘환경전문지 자연담당기자’를 하게 된 것이 좋은 계기가 돼 20년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수려한 자연과 고유의 문화를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폐교를 임대해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을 세우고 청소년과 함께 생태문화를 체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험골’을 운영하던 중 서울에서 취재차 ‘탐조여행’을 함께 했던 한국조류보호협회와 동행했던 일이 생각나 당시 협회장이던 김성만 회장과 상의한 끝에 제주도에 한국조류협회 지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조류보호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 새의 특성을 알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들은 종류에 따라 먹이와 사는 환경이 각기 다릅니다. 특히, 중상을 입게 된 새를 치료하거나 돌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활동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 탈진하거나 충에 맞아 상처를 입고 들어 온 새를 치료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은 새를 사람이 다시 치료해 준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저의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새의 힘찬 날개짓을 보면서 저는 마음 속으로 기원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손에 잡히지 말아라...’

■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훼손 정도는 어느 정도 인  
니까?

▶ 국토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  
은 심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에 의한 자연훼손은 새들의  
번식지와 서식지를 파괴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로 한라산 시로미의 경우  
도 예전에는 열매를 따먹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으  
나 지금은 그 수가 격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얼  
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텃새뿐만 아니라 철새조차  
구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동요속의 “따오기” 볼수없어 안타까워

■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와 발견  
되는 종은 얼마나 됩니까?

▶ 우리나라에는 조류 서식지 2곳(광릉의 크낙새 서식  
지, 울릉도 사동호 흑비둘기 서식지), 도래지 5곳, 번식  
지 15곳 등 총 22곳과 크낙새를 비롯 종으로 지정된 것  
이 20종, 가금화된 1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  
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 중 매와 수리과  
올빼미, 고니류 등 구체적으로 40종의 새들이 천연기념  
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크낙새는 북한에 4-5마리가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따오기의 경우 80년도  
이후에는 관찰된 기록이 없습니다.

### 자연파괴는 종말 앞당기는 자살행위

■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은 무엇입니까?

▶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은 동물에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연생태계가 무너짐으로써 자연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생명력이 다한 자연속에서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고 인간  
도 예외일 수 없죠. 다시 말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  
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대의학에서 불치의 병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연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 지금이라도 환경보호와 자연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  
야할 일이 있다면?

▶ 우리가 늘 접하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새들에게



조그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보호는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작해야죠.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활  
동에 동참한다면 주위에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현상을  
보면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작은 신고  
정신 하나가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아름다운 자연  
을 후대에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 향후 계획이 있다면?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골’에 다친새들의 ‘쉼터’  
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상의하고 있  
는데 금년도에 ‘쉼터’를 꼭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  
다는 말이 강 지회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불혹의  
나이에 자연과 새와 함께 살아가는 그가 있는한 백두대간  
에 걸쳐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한결 날개짓이 가벼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허울 좋은 생각보다 근본적인 환경  
보호정책과 국민의 의식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더욱더 빛나  
리라. 20년만에 돌아 온 ‘까막딱따구리’가 반갑기만한 지  
금, 그들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으  
로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⑤7

송해영 <본지 객원기자>